

중국동북지역 소수민족의 원시적 주거형식과 한국주거와의 관계¹⁾

—赫哲族, 鄂倫春族, 鄂溫克族, 達斡爾族, 蒙古族을 중심으로—

김 성 우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주제어 : 중국 동북지역, 원시 주거형식, 소수민족, 한국주거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건축은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진화과정 속에서 자연환경에 대응하며 형성된다. 비주거건축은 주거건축에서부터 진화되지만 주거건축은 비주거건축보다 더 보수적이고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 원시주거로 상회할수록 건축은 문화적 특성보다 자연환경에 대한 생존적 대응조치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원시건축으로 상회할수록 지금의 국가경계 및 민족적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보다 광범위한 지역 및 시대적 공통성이 찾아진다. 우리는 근대적 국가개념에 따른 한반도 지역의 건축의 역사를 규명하려 하지만 한반도 건축의 원류적 흐름은 지금의 국가·민족적 구분에 맞추어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한국건축의 원시적 흐름은 한반도 내에서 확인되는 발굴자료에 의존하지만 그러한 지리적 경계가 원시사회에서는 전혀 의미있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원시주거는 반도 북쪽의 주거형식과의 상호적 영향관계에서 추적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한반도에 언제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는가의 문제를 떠나서 인종적으로 중국의 북방민족들과 한반도의 원시주거인종이 큰 범위에서 볼 때 같은 계열이며 그 민족들의 이동과정이 역동적으로 한반

도에서도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시 및 고대 역사는 국가사(國家史)가 아닌 지역사(地域史)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의 주거형식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그 형식이 한국주거의 원류적 흔적으로써 어떤 점이 확인가능한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다. 한국 주거건축의 뿌리를 중국 동북지역 주거형식과의 상관성 측면에서 더듬어 봄으로써 그 원류적 의미를 확인한다는 데에 연구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중국 동북지역 소수민족의 원시적 주거문제를 다루되 주로 현지조사와 문헌조사에 의존한다. 현지조사는 2003년 7월6일~24일 중국의 흑룡강성과 내몽고에 분포하는 다섯 소수민족의 조사내용을 출발점으로 한다. 현지조사지역을 흑룡강성과 내몽고로 잡은 것은 길림성의 조선족이나 요녕성의 만족분포와 비교할 때 보다 원류적 생활 습관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현존 소수민족들을 찾으려 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족과 만족의 주거에 대하여는 이미 연구결과가 소개되었기도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그 원류적 뿌리를 추적하는 목적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물론 중국 동북지역에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한족(漢族)주거는 더욱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원시적이면서도 원류적인 주거형식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소수 민족을 연구 대상으로

1)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2-DS2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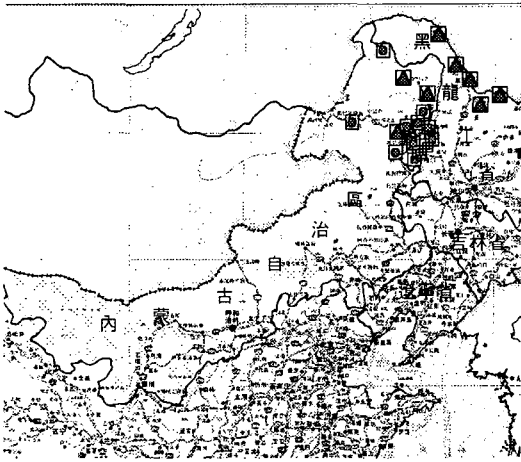


그림 1 조사 대상 민족분포도

해야 했고 그 결과 중국 동북지역에서도 러시아 국경에 인접한 다섯 소수민족이 보다 적합한 연구대상으로 확인되었다. 그들의 거주지역은 흑룡강성의 북쪽과 내몽고의 동쪽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이어야 원형적 주거형식을 다소라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현지조사 시에는 현재의 주거건축과 거주양상을 기본으로 하여 과거의 모습을 추적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의 실물조사 못지않게 면담조사도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이 지역이 매우 낙후된 미개발지역인만큼 원시적 주거의 모습도 소수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거주자와 거주상황에서 어떻게 원시적 주거의 추적이 가능한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은 근대화된 사회를 사는 우리들의 관점에 가깝다. 중국 동북부의 소수민족은 20세기 전반까지도 지금의 우리 눈에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형식을 대부분 유지하며 거주하였다. 따라서 20세기까지 유지되어온 이러한 주거를 원시주거라고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본 논문의 제목에서 “원시주거”라고 하지 않고 “원시적 주거”라는 말을 쓴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주거들이 실제로 원시시대의 주거와 동일하겠는가의 질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례들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보면 큰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 연구는 주거사례들의 시대적 고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러한 흔적에서 확인되는 한국 주거와의 상관성을 문제 삼는다는 논리전개의 방

법과 시대적 범위의 광범위성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출발한 것이다. 사실상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종합할 때 민족별 원시주거의 형식은 큰 어려움 없이 확인된다. 그러한 형식들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9세기를 거쳐 20세기전반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근대화과정에서 소외된 변방 주거건축의 뿌리는 그만큼 끈질기고 깊은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²⁾

문헌조사는 중국 고대의 역사적 기록과 소수민족들에 대한 중국에서의 연구결과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역사적 문헌은 각 민족의 고대주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었고 근대이후의 연구문헌은 최근의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을 비롯한 현지연구자들과의 교류도 이해를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³⁾ 본 연구는 특정시기의 건축을 실물사료에 의거해 고증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변방 소수민족 주거에서와 같이 역사적 지속성이 시대를 초월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그러한 경향에 의거한 한국과의 관련가능성에 대한 가설을 새우려는 것이 목적이고 또 방법이다. 현지 소수민족의 주거와 한반도의 원시적 주거형식과는 시대적 지리적 간격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물적 검증에 따른 직접적 고증의 방법보다 추정적 가설을 포함한 간접적 관계확인을 연구방법적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한국 주거의 원류적 성격을 이 지역 사례와의 관계에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여기서는 원시시대의 역사적 범위가 언제까지 인지 등의 문제가 연구의 한계로 작용하지 않는다. 본연구가 원시시대의 원시주거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에서의 지속적 경향에 근거한 상호적 연관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방법적 성격은 본 연구에서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지 모르지

2) 좀더 확실하게 언급하자면 1940년 정도까지는 원시적 수혈주거가 보편화되어 있었고 이것이 한족의 주거형식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는 이 지역이 일본군에 관리 아래에 편입되면서 1940년을 전후하여 귀촌병둔(歸村井屯)이라는 명목하에 흩어져 사는 소수민족들을 한 곳에 정착시키면서 비롯되었다. 여기에 관하여는 서경상(1966) 『중국혁명철족』, 흑룡강성인민출판사 295~6쪽에 소개되어 있다.

3) 중국 하얼빈시에 있는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의 여러분이 본 연구팀의 현지 조사에 안내와 자료수집 등의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만 주거사 연구에서는 좀더 보편성을 갖도록 적용범위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북방 소수민족의 계보와 분포

중국의 동북지역이 길림, 요녕, 흑룡강성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것은 20세기 중반의 일이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초원지역과 연계되어 중국의 한(漢)족중심의 문화권에 대응하는 북방민족들의 역사적 거점과 문화적 변방의 역할을 같이 수행한다. 역사적으로는 고구려 및 발해와 연결되고 고대부터 한반도 문화와의 인종적, 문화적 연관성이 연구되어 왔다. 넓은 범위의 인종적 구분으로 볼 때는 유목민족의 뿌리를 갖는



그림 2 어룬춘족 썬런쑤 (德學英, 「鄂倫春」)

역사적으로 수많은 민족들로 분화되어 왔고 말을 타는 관계로 기동성이 높아서 민족간의 맥과 거주지역의 한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중국 문헌에 나타난 북방민족의 계보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어, 학계에서는 특정 민족의 기원이나 계통 등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제설이 분분한 실정이다. 광범한 지역의 분포와 시대적 변천 및 문헌적 정보의 제한성 때문에 이들 북방민족을 체질학적으로 혈통이나 체형 등을 따져서 정확히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고 또 효율적이지도 않다. 반면에 언어는 민족을 구별하는 주요 지표가 되는데 중국고대 북방민족을 언어에 따라 5가지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⁴⁾.

이 다섯 계통은 匈奴계통, 突厥계통, 肅慎계통, 東胡계통, 貊계통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고대 북방민족은 역사상 중원지역(中原地域) 한(漢)족정권의 변방지대인 만리장성주위와 그 이북의 지역에서 활동했던 諸민족을 통칭하여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동북쪽 즉 서북지역을 제외

한 현재의 내몽고자치구와 동북삼성에 거주했던 민족들을 다룬다. 주로 현재 만주족과 몽고족의 선민(先民)이다.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와의 지역적 연관성을 고려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다섯 계통 중에 흉노와 돌궐계통은 그 거주지역이 동북쪽이기보다 서북중국쪽으로 치우치므로 본 연구의 대상민족에서 제외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 포함된 소수민족 중에 만주족, 허저족, 어원커족, 어룬춘족은 肅慎, 挹婁, 勿吉, 靺鞨, 女眞 등에 해당되고 몽골족 및 다위얼족은 東胡, 烏桓, 鮮卑, 契丹 등에 해당된다. 이러한 민족의 구분은 주로 언어의 계통에 의한 분류이다. 언어에 따른 구분이 인종과 민족에 대한 계층분류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역에 따른 생활양식상의 유사 또는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즉 언어가 달라도 인접지역의 동일한 자연 환경적 조건 때문에 건축이 공통적이게 되는 사정이 따르게 된다. 여기서는 언어적 구분을 중요변수로 참조하면서 지역적으로 중 동북지역의 소수민족에 해당하면 모두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조선족과 만주족은 이미 별도의 조사내용이 있으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⁵⁾. 역사적으로는 조선민족이 맥 계통에 가까우나 현재 연변의 조선족 이외에 맥계통의 소수민족이 별도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5개의 조사대상 민족이 숙신과 동호 계통에 언어적으로는 소속되지만 그러한 구분이 건축적으로도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은 알려진 소수민족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시켰다. 한편 중국고대 사서(史書)에서 확인되는 고대민족들의 주거관련 기록을 민족별로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이러한 역사적

5) 김준봉, 「중국 동북지역 한인동포(조선족) 전통민가 평면의 분류와 특성」,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김영준, 「중국 연변조선족 전통마을의 공간구성과 주택 평면형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박성규, 「중국 요녕성 조선족 민가의 형식과 평면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은정,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전통민가의 형식과 변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원석, 「중국 동부지역 함원 및 天井式 민가와 한국 口자형 민가의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6) 김호걸, 「중국 고대 북방 제민족의 거주문화」,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2003.5를 근거로 함. 김호걸은 본 연구팀의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인용한 본문도 본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연구된 것이다.

4) 김호걸, 중국 고대 북방 제민족의 거주문화,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2003.5.p.103.

계통	분포지역	언어	관련소수민족	민족	주거문화	비고
동호계통	중국 중북과 동북지역	알타이어계몽고어족	몽고족, 다위얼족	烏桓	유목, 정해진 거처없음,穹廬를 집으로 삼아 거주함, 문은 동쪽으로 내어 태양향함.	1. 유목문화의 특성상 “뜯고 씹고, 설치하기 간편한” 이 동식 주거가 발달. 몽고빠오(蒙古包) 2. 화수껍질로 덮은 집, 소거는 당시 광활한 지역에 거주하던 실위인의 지역에 따른 풍습의 차이임. 오늘의 어른층으로 추정됨. 3. 해가 뜨는 동쪽이 존귀한 방향임. 동쪽으로 문을 냄. 표현을 통해 추운곳임을 알 수 있음. 4. 온돌이 아닌 “이로리”형식의 난방방법. 5. 실위에서 각 部마다 장례를 위한 공공건축물인 大柵을 짓는다.
				鮮卑	언어와 습속 오환과 같음.	
				柔然	성곽이 없음, 유목,穹廬에 거주	
				奚	유목, 자주 이동, 氍帳에 거주하고, 수레를 이용하여 쉼을 만든다.	
				契丹	수렵에 따라 이동, 동쪽을 귀하게 여겨 네누각의 문은 모두 동쪽으로 향함.	
				室韋	여름에 城에, 겨울에 수초를 따라 이동 혹은 小室에 가축을 덮고 서로 모여살아 수십백의 가구에 달하기도 함. 巢居하거나 나무를 구부러 거제를 덮기도 하고 이동서 실어서 움김. 장례를 위해 각 부마다 공동으로 大柵 지움. 돼지가죽으로 석(席)을 만들고 부너자는 무릎을 안고 앉는다. 북실위는 겨울에 산에서 土穴에서 거주함. 鉢室韋는 樺樹 꺾대기로 집을 덮는다.	
숙신계통	중국 동북지역	알타이어계滿통구스어족	만주족, 시버족, 허저족, 어원커족, 어문춘족	肅慎	깊은 산골짜기산다, 나무위에 기거, 겨울에 땅을 파고 생활했다.	1. 산지선호. 2. 혈거(여진제외)함. 여진의 柵屋에 온돌이 있다.柵屋는 통나무로 짠 귀틀집(井杆式)으로 추정됨. 3. 숙신, 읍루의 주거는 뒷간을 중앙에 두는 裏廁表居형, 비교적 원시성을 띤 주거형태. 후에 만주족의 삼면이강인 실내배치와 관련있을 것 같다. 4.돼지를 가축으로 사양, 농경이 주, 수렵과 어로도 어느 정도 비중차지함. 축사의 위치 판단할수 없음.
				挹婁	삼림속에서 땅을 파서 그안에서 생활, 깊이가 깊을수록 신분이 높다. 변소가 중간에 있고, 주위 사람이 거함. 돼지를 잘 기른다.	
				勿吉	성을 쌓아 혈거, 집모양 무덤같다. 입구가 있어 사다리로 출입함, 가축에 말이 있고 소와 양이 없음.	
				靺鞨	흙을 방죽(堤)처럼 쌓아 굴파고 들어가 산다. 위쪽에 입구가 있음.	
				黑水靺鞨	집은 산수간 구덩이에 보를 걸치고 흙을 덮은 것으로, 모양이 무덤같다. 여름에는 풀을 따라 나가고 겨울에는 들어와 거함.	
				女眞	골짜기에 거주, 나무를 연결하여 울타리를 만듦. 집높이 수척, 기와없음. 지붕은 목판, 화피, 혹은 뽕뽕하게 엮은 풀을 덮음.담장과 울타리재료가 나무, 문은 동향. 집의 들레에 토상밑으로 불길기 지나가고 위에서 침식과 기거함. 이것을 炕(炕)이라 함.	

맥 계 통	중 국 동 북 지 역	알 타 어 계 조 선 족	조선족	高 句 麗	산곡에 의지해 거주. 궁실 짓기 좋아함. 사는 곳 좌우로 대옥(大屋)을 지어 귀신에게 제사하고, 靈星과 社稷을 모심. 작은 창고가 집집마다 있는데 이름이 桴京이라 함.	1. 고구려와 부여 지형차이가 있지만 궁실이란 공통점 있음. 궁실: 지상 토목구조의 방옥임. 농경위주의 맥계통의 민족의 건축문화가 숙신보다 선진적임. 2. 고구려와 濊의 기사에 대한 주거신앙이 보임. 고구려의 창고 부경은 맥계통의 주거가 당시 이미 주거공간의 기능적 분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한반도 주거문화의 기본틀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3. 고구려건축의 온돌-문맥상 온돌은 하층민의 주택에서 쓰여진 난방시설인 듯 하다.
				夫餘	山陵과 廣澤이 많고, (땅이)東夷의 지역중에서 가장 평평하고 넓다. 사람들은 토착민이고, 宮室과 倉庫와 牢獄이 있다.	
				濊	질병으로 사망하면 곧바로 옛집을 버리고 새 집을 짓는다.	
				高麗	반드시 산곡에 의지하여 거한다. 茅草로 지붕을 덮는다. 불사, 신모, 왕국은 기와를 썼다. 겨울에 長炕을 만들어 밑에 불을 지펴 온기를 취한다.	

기록과 현지조사 및 기타 문헌 자료상의 근거를 종합해 볼 때 현지조사자료와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들의 원추형 주거는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만 명칭과 크기 및 제작 방법에 약간의 차

3. 북방소수민족 원시주거의 형식

현지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각 민족의 원시주거형식을 분석해본 결과 몇 가지 공통점이 드러났다. 민족마다 차이점이 드러나는 경우 그 차이를 별도로 언급하되 본 논문의 목적상 전체적이고 공통적인 경향을 위주로 기술하였다. 그중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1. 원추형 주거형식

민족마다 원추형 주거를 부르는 이름과 세부구성에서의 약간의 차이는 드러난다. 가장 확실한 것은 모든 민족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원시주거의 최초형태는 나무로 엮은 원추형 주거이었다는 점이다. 문헌조사와 현지 및 현지면담조사에서도 거주인들 스스로가 서로 민족이 달라도 원추형 주거형식이 하나의 공통된 뿌리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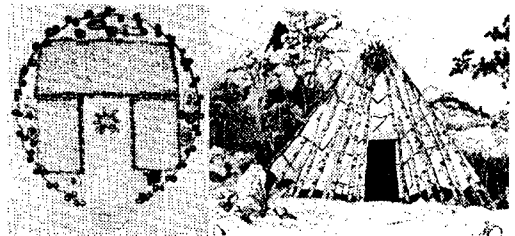


그림 3 원추형주거의 평면과 원추형주거 (秋浦, 「鄂倫春族」)

이가 있었다. 일반적인 제작방법은 주로 평탄한 대지 혹은 강변에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원추형의 골조를 이루고 그 위에 천막, 혹은 화수피(樺樹皮)⁸⁾, 짐승가죽, 나무판 등 다양한 재료로 덮는다. 출입구는 남향으로 낸다. 이렇게 하면 내부는 원형의 평면을 가진 공간이 형성된다. 그 내부 공간 중앙에 화로가 놓여지고 북쪽, 동쪽, 서쪽으로 침상이 놓여진다. 실내 공간의 북쪽 정면을 어른층의 경우 “마루(瑪路)”라고 부르는데 각종 신상

7) 예로서 2003년 7월 10일 中國 黑龍江省 同江市 街津口鄉 赫哲族鄉 尤玉發과의 면담.

8) 樺樹皮: 자작나무 껍질을 칭함

을 모시는 곳으로서 아주 신성한 곳이다. 여기에는 여자들이 접근하지 못한다. 오직 주인이나 남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이 곳을 “마루”라고 부르는 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마루”라고 부르는 것과의 상관성을 강하게 연상케 한다. 화로 양쪽의 동서쪽에 놓인 침상은 “오루(輿路)”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서쪽이 상석이어서 노인 부부가 자며 동쪽에는 젊은 부부가 잔다. 크기는 확일적으로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식구의 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일반적으로 나무골조의 수는 20~30개이다.



그림 4 칩춰즈 짓기 시연중 완성된 모습 (黑龍江省 同江市 街津口村)

우리가 아는 아메리카 인디안의 원추형 주거와도 그 형식적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시적으로 이지역이 산림지대이고 따라서 나무가 풍부하며 이들이 수렵생활을 하면서 임시적인 주거를 간편하게 지을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도 이러한 원추형 형식의 집이 생기게 되었던 배경으로 추정된다. 그림3은 어룬춘족의 원추형 주거이고 그림4는 허저족 주거의 현지조사시 칩춰즈(원추형 주거) 짓기를 시연하였을 때 최종으로 완성되었던 모습이다⁹⁾.

원추형 주거의 내부공간은 물론 원형이다. 그것은 원시시대에 나무를 상부에서 수렴하여 하나로 묶을 때에 하부가 원형인 경우가 가장 자연스러운 구축의 모델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쉽게 이해가 된다. 원형 평면이 그대로 남아서 현재까지 존속되는 경우가 몽고족의 천막구조이다¹⁰⁾. 그것은 원추형의 구조에서 위의 뾰족한 부분을 낮게 처리하며 벽을 세우고 부재간의 짜임을 정교하게 할 때에 그러한 원형 천막주거로 자연스럽게 진화된 것이었다(그림5). 조사된 소수민족 원추형 주거의 내부구성방식도 몽골족의 원형 천막주거와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었다. 몽고족의

원형 천막주거가 북중국의 보편적 주거형식의 한 변형이라는 점도 새삼 우리에게 기억될 필요가 있는 일이다. 중국고대기록에서 숙신 계통의 주택을 묘사하여 무덤 같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원추형 주거의 변형이면서 흙을 덮은 경우가 아니었을까 상상된다¹¹⁾.

원추형 주거형식은 조사된 대부분의 민족에게 사용되었었고 현지조사시 몽골족의 경우에만 원추형이 아닌 변형천막주거로 지금까지 남아있었다. 표2에서는 민족들에 따라 불리는 원추형주거 명칭의 차이점, 재료, 구조, 및 크기, 공간사용 등에서의 달라지는 점을 정리하였다. 원추형 주거에 대한 명칭은 허저족이 가장 상세하게 분화되어 있었다. 이들은 재료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르며 다른 민족은 이에 비해 명칭이 다양하지 않았다. 사용빈도나 사용기간을 비교하여 보면 허저족과 어룬춘족, 어원커족이 제일 흔히 사용하였으며 다위얼족 같은 경우는 다른 민족보다 일찍 정착을 하여 다른 종류의 주거형식을 사용¹²⁾하였기



그림 5 몽골게르(Ger)의 변화과정 (바야르, 이문섭, “몽골주택의 역사와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때문에 원추형 주거형식을 사용했던 역사에 대해서는 단지 사용했었다라는 기록¹³⁾만 찾아볼 수 있고 다른 도면이나 사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몽골족은 완전한 원추형이 아니나 원추형에서 발전되어 현재의 몽고 빠오로 되었다고 볼 때 같은 계통의 변형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허저족과 어룬춘족의 원추형 주거를 비교하여 보면 어룬춘족의 원추형주거의 중앙에는 허저족과 달리 기둥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9) 2003년 7월 10일 黑龍江省 街津口 赫哲族鄉 현지 허저족 사람들 칩춰즈 원추형주거 짓기 시연을 하였음.

10) 바야르, 이문섭, “몽골주택의 역사와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19권 제2호, 1999.10.30, p.362

11) 표1 내용 중 숙신계열의 흑수말갈의 주거문화 참조.

12) 楊荊楚, 「東北漁獵民族現代化道路探索」, 民族出版社, 1994.9, pp.108~109

13) 達翰爾資料集 編寫組, 「達翰爾資料集 第3集」, 民族出版社, 1996, p.180

표 24 각 민족의 원추형 주거 및 특징

민족명	명칭	덮는 재료	구조	크기 ¹⁴⁾		공간사용	주사용 계절	비고	
				대형	소형				
허저족 (赫哲族)	취뤄즈 (撮羅子), 혹은 취뤄 안커우 (撮羅安口)	오루거터안커우 (敖如格特安口,)	마른 풀 (茅草)	10~20개의 나뭇 가지를 25~30cm 간격으로 원추형 골조를 만든다. 가는 나뭇가지를 횡으로 둘러 골조 를 고정시키고 남 쪽에 입구를 만들 고 입구를 제외한 골조둘레에 밑부 분부터 위쪽으로 한바퀴씩 풀을 덮 는다.	대형	6m	남향으로 출입; 정면마루 즉, 신상을 모시는 신성한 곳다; 침상이 북,동, 서쪽으로 3개 가 있는데 북 쪽은 남자주인 이 거하는 곳, 서쪽이 동쪽침 상보다 상석이 다.	여름	
		타라안커우 (塔拉安口)	화수피 (樺樹皮)					겨울	
		윈터허안커우 (溫特和安口)	나무 판 (木板)		겨울				
		안타안커우 (按塔安口)	짐승 가죽 (獸皮)		겨울				
		보우스안커우 (保斯安口)	천막 (布)		겨울				
어룬춘족 (鄂倫春族)	셴런쭉(仙人柱), 세린쭉(斜人柱) 또는 취뤄즈(撮羅子)	화수피, 갈 대, 천막 狗의 가죽	허저족과 거의 같 지만 중간에 지지 기둥이 있는 경우 가 있다.	대형	7.3	출입구 남향; 북쪽정면을 마 루-신상을 모 시는 곳; 양쪽 침상을 오루 (輿路); 중앙에 화로를 놓음.	4계절		
				중형	6.5				
				소형	5.9				
어윈커족 (鄂溫克族)	싸시거쭉(薩喜格柱) 혹은 아나거(阿那格)	화수피, 버 드나무가지 로 엮은 것, 갈대, 갈대 밭(葦笆), 느릅나무겉 질, 마른 풀	3개의 주요골조, 20~30개의 보조 골조, 윗부분에 골조들을 겨놓는 환형 고리가 있 음.	약 4m(1丈 2尺)			4계절용		
다위얼 (達斡爾族)	쭉커차(柱克查) 혹은 우르거(烏日格)							일찍 정 착; 사 용 시 간짧음	
몽골족 (蒙古族)	몽고빠오	천막, 짐승 가죽							

3.2. 수혈주거형식

수혈주거는 원추형주거와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형식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원추형주거에서 내부지면을 수직으로 파서 지표면아래에 거주공간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외형으로는 원추형주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문헌에서도 수혈주거가 자주 언급되며 우리나라의 원시주거도 수혈 주거의 발굴사례가 풍부하게 있다. 원추형 주거는 수혈주거인 경우와 수혈주거가 아닌 지상주거인 경우를 포함하며 또한 수혈주거는 시대가 지나면서 원추형이 아닌 방형주거형식으로 발전하여 가는 궤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수혈주거가 원형에서 방형 및 장방형으로 발전해가면서 점점 지상주거화하며 후대의 살림집으로 정착해온 것은 한국의 주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지만 이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원추형주거는 완전히 잊혀지기보다 경제력이 약한 경우나 이동형, 임시형, 주거 등으로 사용되는 쪽으로 지속된다. 현지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현재의 주택은 많은 경우 한(漢)족, 또는 만주족과 동화된 변형이 대부분이었으나 도시와 떨어진 외지에서는 아직도 수혈주거형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6, 7은 허저족의 반지혈건축¹⁵⁾이고 그림8은 어원커족지역의 사례이다. 이런 반지혈건축은 실내의 바닥이 지면보다 50~100cm 낮고 실내는 통칸으로 되어있다. 그림9의 도면은 그림7의 경우를 그린 것이다. 조사 당시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 훈툽강(混同江)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가옥인데 내부에는 북쪽 벽에 붙어서 놓인 일자칸(一字炕)이 있었다. 불은 강의 남쪽면의 왼쪽에서 댄다. 이에 딸린 부뚜막은 없고 단지 불을 때는 아궁이만 있었다. 강의 높이가 약 40cm이고 강의 남쪽은 부엌 및 출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찬장과 세면도구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 집의 바로 옆에는 귀틀로 짜여진 창고(타커투¹⁶⁾)가 가까이 있었다. 그림8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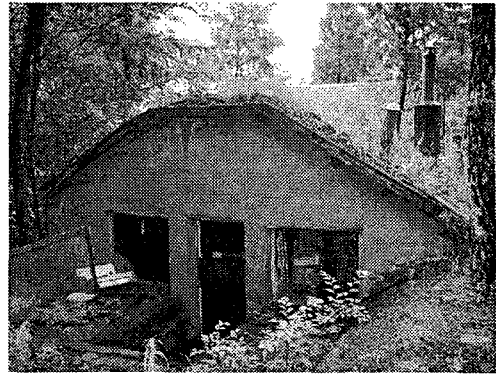


그림6 地窰子
(黑龍江省 同江市 街津口鄉 허저족 문화촌)



그림7 尤春生 민가
(黑龍江省 同江市街津口鄉)



그림8 內蒙古自治區 陳巴爾虎旗 鄂溫克民族蘇木의 띠인즈

서 보이는 어원커족의 띠인즈는 허저족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허저족의 띠인즈보다 바닥이 깊고 입구에 바람을 막는 공간을 하나 덧대었다. 내부에도 칸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겨울에 몹시 춥기 때문에 수혈주거가 추위를 피하는 수단으로써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추형주거도 짐승가죽 등으로 덮어서 겨울용 주거로 사용하였었지만 수혈주거가 겨울난방에 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원추형보다 더 발달한 형식으로 간주되어서 좋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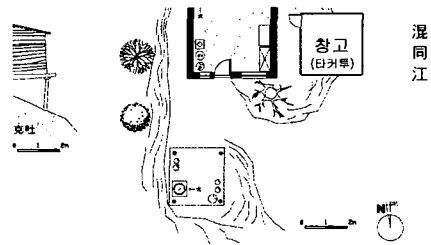


그림9 허저족 尤春生 민가 입면과 평면
(黑龍江省 同江市 街津口鄉)

14) 땅과 접하는 원의 직경

15) 민족마다 수혈주거를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허저족은 “띠인즈”라고 부르며 한자로 적으면 “地窰子”가 된다.

16) 타커투: 허저족에서 창고로 사용하는 귀틀형식의 건물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이 명칭을 한자로 표기하면 “塔克吐”이다.

3.3 귀틀다락형식

조사된 소수민족 주거형식에서 또 하나 두드러진 형식은 귀틀다락형 구조이다. 이 형식은 지상에서 나무를 수평으로 눕워서 위로 쌓아 올린 것으로 바닥을 땅에서 띄워 지상에 떠있게 하는 주거형식을 가르킨다. 우리에게는 “귀틀집”으로 잘 알려진 형식이다. 현지에서 조사된 다락형식은 주로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락형식의 출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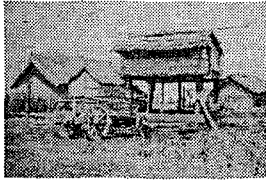


그림 10 허저족 창고-1
(凌純聲, 松花江下游的赫哲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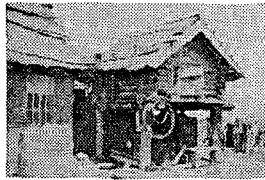


그림 11 허저족 창고-2
(凌純聲, 松花江下游的赫哲族)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과거에는 여름용 주거로도 사용되었으나 근대이후에는 대부분 창고의 목적으로 쓰인다. 역사적 기록에서도 여름용주거로 사용되었던 기록이 나타난다.¹⁷⁾ 근대이전에는 겨울에 수혈형식주거에 거처하다가 여름에는 다락주거로 옮겨서 살았었다는 사실을 현지인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¹⁸⁾ 현지에서 조사된 허저족 주거의 경우 거의 모든 집이 귀틀로 짜인 다락형식 창고를 갖고 있었다. 그림 9의 여우춘생가옥인 수혈주거 동쪽에



그림 12 허저족 창고-3
(黑龍江省 同江市街津口鄉)

에 귀틀로 짜여진 창고는 아주 작은 경우이다. 필요에 따라서 바닥의 높이 규모 등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10~12는 문헌과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허저족의 귀틀창고이다. 허저족뿐만 아니

라 어룬춘족과 어원커족도 이런 창고를 가지고



그림 13 어룬춘창고-1
(瑪尼, 「高祿嶽馴鹿人連輯」)



그림 14 어룬춘족 仙人柱 앞의 낮은 창고-2
(秋浦, 「鄂倫春族」)



그림 15 어원커족 王全宝 주택
(內蒙古自治區 陳巴爾虎旗 鄂溫克民族蘇木)

있었다. 그림 13~14는 어룬춘족의 창고이다. 그림13은 수림속에 귀틀다락식으로 아주 높게 지어진 경우이다. 그리고 어원커족의 경우는 현재에도 이귀틀집을 주거형식으로도 사용하고 있었다(그림 15). 이 경우 허저족의 창고들과 귀틀집형식이라는 것은 같지만 창고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실내도 실이 주방과 방으로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다. 다워얼족과 몽골족, 즉 동호계통민족의 경우에는 다락형식이 현지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문헌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귀틀다락집은 나무가 풍부한 속인과 맥계통의 민족에게 좀더 보편적인 건축형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상원추형 또는 수혈주거가 늘어나는 생활용품이나 곡식 등을 저장하기에 공간이 충분치 않았을 때 다락형 창고의 구축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경으로 알려진 고구려의 다락형 창고도 고구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북방 소수민족의 삶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했던 보편적 형식이었던 것이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그림9와 그림 14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용 건축과 다락형창고가 바로 옆에 인접하여서 하나의 셋트로서의 단위를 이룬다는 것이 원시로부터 이어지는 불가피했던 형식으로서 이해되어서 좋을 것이다. 다락형식이 여름용 거주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언제

17) 팽궈의 기록에 “夏則巢居, 冬則穴居”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름에는 나무위에 집을 지어 거주하고, 겨울에는 혈(穴)에 거주한다는 뜻이 된다. 나무위에 짓는 집은 나무로 짓되 바닥이 떠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귀틀다락형식 또는 그 시원적 형식으로 보아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18) 2003년 7월 10일 中國 黑龍江省 同江市 街津口鄉 尤玉發와 면담

까지 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주택이 수혈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후 여름에도 덥지 않게 거주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주택이 생겨나면서부터 다락형식은 창고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중국 역사적 기록에서도 창고를 언급하였지만 이것은 고구려 부경과 같은 귀틀 다락집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4 구들형식

북방 소수민족 주거의 현지조사 결과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살림집에서는 칸이라고 불리우는 구들형식이 없는 경우는 찾아지지 않았다. 그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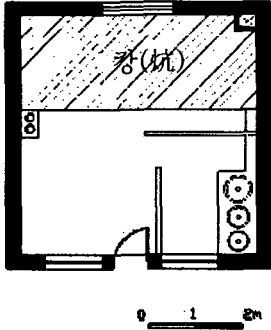


그림 16 허저족 띠인즈평면 (黑龍江省 同江市 街津口鄉 허저족 문화촌)

에 해당하는 허저족 수혈주거의 경우에도 주거 내부에 칸이 형성되어 있으며 아궁이 부분이 입구 옆 한 쪽 구석에 치우쳐 있고 입구와의 사이에 간이벽으로 막혀 부엌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그림 16). 이러한 경우는 원시적 수혈주거에서의 난방 및 취사 문제가 공간적으로

해결 되어있는 사례로써 구들이 취사와 연결되는 원시적 연원을 추적해 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이다. 난방과 취사를 겸할수 있도록 아궁이가 배치되고 칸과는 연도로 이어진다. 이 경우에 칸으로 된 부분과 그 전면 입구부분 사이를 벽으로 막았다면 칸(炕)부분은 전면 온돌방이 된다. 중국 동북지역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불을 이용한 난방은 필수적인 삶의 방안이었던 점이 기억되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기 보다는 구들은 북방지역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그 출현시기는 원시주거에 까지 상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표1의 역사적 기록에서도 여진족의 경우에 이미 칸의 출현을 기록하였던 것이 기억될 필요가 있다¹⁹⁾. 그것은 겨울을 나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언급한 원시형 주거형식 이외에도 보다 진전된 주거형식은 확인된다. 예를 들면 허저족의 경우 지상주거로서 귀틀형식이 아니고 수직으로 목재를 세워서 짓는 마짜즈²⁰⁾형식이든지 몽고족의 천막주거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1900년대 이후에는 한족과 공통화된 정방²¹⁾형식이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추가적 주거형식은 앞에서 열거한 형식들보다 후대에 지어졌으며 민족들 사이에 공통적이기보다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본 논고에서는 한국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볼때 이러한 후대의 경우들보다는 원시형의 주거가 더 의의가 있으므로 자세한 언급을 생략한다.

4. 한국주거와의 상관성

4.1 원추형 주거형식의 원형적 성격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북방 소수민족들의 주거원형을 추적하여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공통적으로 원추형 주거형식을 만나게 된다. 그것은 민족의 이름이나 분포지역에 관계없이 대부분 공통적이다. 원추형 주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확실히 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한국의 경우 신석기시대에 원형 수혈 주거형식이 있던 것이 기억될 수 있다. 원추형 주거가 대략 언제까지 사용되어 왔었는가 하는 것은 이들 소수민족이 언제까지 주거를 이동하며 수렵 또는 어로생활을 하였는가와 관계가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20세기 전반부까지도 원추형 주거에서 살았었다는 사실을 면담과 문헌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허저족의 경우 1910~1920년 경에도 이런 건축을 사용했었다고 한다.²²⁾ 예를 들면 1953년에 중국 흑룡강성(黑龍江省)에 분포되어 있는 어룬춘사람들은 대체로 정착을 하였고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에

20) 마짜즈(馬架子) 주거형식은 평지의 지상에 지으며 박공부분의 측벽이 남북 향을 하고 있고 출입구가 남쪽 측벽에 나 있는 것이 다른 일반적 중국주택과는 다르다.

21) 정방(正房)형식이란 2~3칸으로 된 흙 또는 흙벽, 벽돌로 쌓아올린 장방형의 주거건축형식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초가 또는 기와지붕을 얹는데 지붕형식은 맞배형식이다.

22) 《民族問題五種叢書》黑龍江省編輯組(1987), 赫哲族社會歷史調查,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p.150

19) 표1 내용 중 숙신계통의 여진족 주거문화를 참조.

분포되어있는 어른춘사람들도 1954년부터 정착을 시작하여 1958년에 대부분 정착하였다²³⁾, 이러한 사실은 1950년경까지도 원추형 또는 그와 유사한 주거가 사용되었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60년대까지도 이러한 원추형 주거를 짓고 살며 이동생활을 하였었고 특히 남자들이 집을 떠나 수렵 또는 어로활동을 할 때 간이형 주거로써 원추형주거가 사용되었다는 것도 면담을 통해 확인된다. 이러한 원추형 주거가 북방민족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사용기간이 불과 수십년전까지 이어져 내려왔었다는 점은 한국주거와의 연관성의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진다. 즉, 한반도에 거주하였던 민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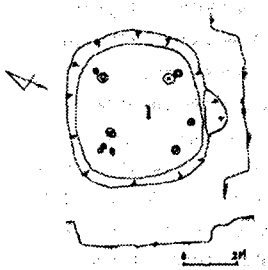


그림 17 암사동 제6호 움집터 평면도

원시적으로 원추형 주거형식의 뿌리를 공유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우리는 한반도의 신석기 수혈 주거 흔적에서 원추형으로 추정 가능한 고고학적 발굴사례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림17). 그러나 한반도에서도 주거가 아닌 창고, 방앗간으로 사용된 원추형 간이 형식은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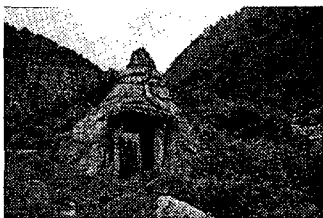


그림 18 한국강원도 산간지역의 동방앗간(강원도 신리)

그것은 원시사회 때부터의 주거형식이 습관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흔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북방 소수민족의 흔적으로 볼 때 원추형 주거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경우에서도 확인되듯이 북방 제민족들에게 있어서 보다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활용되었으며 그 사용기간이 20세기까지 이어져 왔었다라는 점에서 동북아시아 북방민족 주거형식의 원시적 전형으로써 새롭게 인식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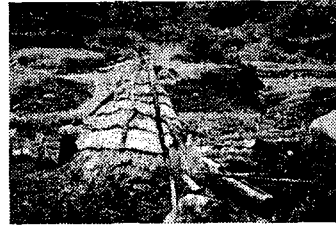


그림 19 한국강원도 산간지역의 동방앗간 2 (강원도 신리)

국인의 주거에서도 하나의 뿌리같은 형식으로 인식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가설을 세우게 한다. 그것은 중국 남방지역에서는 북방지역보다 일찌기 수직벽체가 원시주거에서부터 나타나는 것과 비교해 볼 때²⁴⁾ 이동이 쉽고 짓기에 간편한 원추형 주거형식이 늦게까지 수렵과 어로를 주업으로 하였던 북방계열 민족에게는 더 장기적으로 선호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4.2 원추형 주거의 내부공간 구성의 원형적 성격

우리나라에도 청동기시대부터는 장방형의 집자리가 발굴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경우 석기시대의 집자리보다는 더 진전되고 내부공간이 발달된 경우가 확인된다. 그러나 청동기 및 초기철기시대의 수혈주거에서도 원형 또는 원형에 가까운 집자리는 발굴에 의해 찾아진다. 계급의 분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서민들의 집자리는 여전히 원형수혈주거이었을 확률은 매우 높다. 원추형 주거형식의 경우 당연히 그 내부공간이 원형이고 방형에 근접하더라도 모서리가 둥글게 꺾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지조사 및 문헌에서 확인되는 원형 내부공간 구성의 공통적 특징이 몇 가지 확인된다.

남쪽에 나있는 문에 들어서서 마주보는 북쪽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곳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들 소수민족들이 아직도 이곳을 “마루”라고 부른다. 어른춘족은 이곳을 “마루(瑪路)”라고 부르고 어원족은 이곳을 “마루(瑪魯)”라고 부른다²⁵⁾. 이들이 마루라고 부르는 이름에

24) 丁伯齡, 中國古代建築技術史, 博遠出版有限公司, 中華民國97年, pp.18~29

25) 秋浦, 鄂倫春族, 文物出版社, 1984.2, p.99
內蒙古自治區編輯組, 鄂溫克社會歷史調查, 內蒙古人民出版社

23) 秋浦, 鄂倫春族, 文物出版社, 1984.2, p.140

해당하는 한자가 사용되지만 한자는 그들의 발음에 해당하는 음을 한자로 적은 것이기에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주목할만한 것은 이들에게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상의 명칭이 “마루”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집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대청마루 등의 명칭과 관계지워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주거에 관한 언어사용상의 시원적 흔적이 아닐까 가정해본다.

한편, 원형주거를 사용했던 대부분의 민족들이 북쪽의 마루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부공간이 동쪽이 아닌 서쪽이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서쪽에서 취침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동쪽 편에 취침한다. 이러한 경향은 원형주거가 아닌 지상주거에서도 이어져 내려오는 경향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면 만족 주거에서도 주택 중앙의 서쪽 부분이 동쪽보다 중요하게 취급된다.²⁶⁾ 우리나라주거의 경우 마루의 서쪽에 대부분의 경우 안방이 위치한다는 점과도 관계가 깊다고 생각된다. 현지에서 조사되거나 문헌에서 확인된 원형주거는 대부분 남쪽에 문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고대 역사 기록에서는 동호계통의 주거와 숙신계통의 여진족의 경우에 동향의 문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⁷⁾. 문이 동쪽에 있다는 것은 서쪽이 실내의 중요 거주공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서쪽거주의 습관도 서쪽을 위계적으로 높은 부분으로 이해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아무튼 중앙의 마루와 동서쪽의 침대구성이라는 원형주거 내부 공간의 성격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거에 통용되는 가운데 중앙의 마루와 양쪽에 침실에 해당하는 안방 건너 방의 구조와 일치되고 그중에도 서쪽에 더 중요한 방이 있다는 사실과도 일치된다. 우리 주거의 한연원으로서 기억될 만한 사실이다.

4.3 수혈주거와 지상주거의 문제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주거의 원시적 형태를 수

혈주거 위주로 생각하여 왔고 그것은 발굴조사에 의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발굴자료에 의한 한국주거의 원형을 추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발굴사례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발굴에 의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배제해서 좋다는 주장이 되어서는 않된다. 발굴사례는 그것이 땅 속에 묻혀있었기 때문에 보존이 가능했을 뿐 지상에 어떠한 형식의 주거가 있었다면 그것은 발굴에 의하여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혈주거가 시대가 지나면서 발달하여 점차적으로 지상주거화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현지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원추형주거가 수혈식으로 된 경우 이외에 지상에 지어졌던 경우도 보편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원추형 주거가 어느 정도 정착성을 갖는 경우가 있었는가하면 이동에 편리하고 짓기에 간편한 지상원추형 주거가 더 짓기에 간편하고 겨울용이 아닌 경우에는 지상주거가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 여건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중국의 동북방보다 날씨가 더 온화한 한반도에서도 겨울용 수혈주거가 아닌 지상주거 역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단지 수혈주거와 같이 발굴에 의한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가정해본다면 모든 자료에서 한국원시주거로서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수혈주거 이외에 지상주거가 수혈주거와 같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중국 소수민족의 경우에는 여름용 원추형주거 및 다락형 여름주거의 경우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굴자료로서 남아있지 않아도 한반도에서 있었을 확률은 높다고 생각한다. 지상주거의 가능성 문제가 전혀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중국 동북 소수민족의 원시형 주거를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그 형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짐작해보며 되새겨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었다.

4.4 귀틀다락집

원추형주거 이외에 북방민족들에게 또 하나의 보편적 주거형식을 꼽는다면 귀틀다락집이다. 앞서도 논의하였듯이 귀틀로 짜여진 다락집은 그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확인이 안 될 만큼 시원

社, 1986.11, p.204

26) 김성우, 이원석, 김준봉, 중국 요녕성 만주곡 민가의 특성과 그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5호 (통권151호), 2001년 5월, p.98

27) 표1의 내용중 동호계통의 거란(契丹)족과 숙신계통의 여진족의 주거문화를 참조.

적인 형식으로 보여진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원추형 주거가 보다 더 원시적인 것이라는 점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귀틀다락집의 경우도 그 역사적 연원이 매우 오래되었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역사기록에서도 기록하였듯이 역사시대를 뛰어넘는 선사시대부터의 건축흔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²⁸⁾. 잘 알려져 있듯이 이 경우는 일반적 지상주거와는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상에서 바닥이 떠있으며 그 바닥은 나무로 짜여진다. 그리고 벽체는 수평으로 누인 통나무를 수직으로 포개서 벽을 만든다. 귀틀다락집의 용도가 여름거주용인 경우와 창고로 사용되는 경우의 두 가지 이었던 점은 현지



그림 20 한국 전남 심원의 귀틀집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귀틀집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으며 현재도 백두산 기슭에 사람이 살고 있는 귀틀집마을이 남아있다(그림 20, 21²⁹⁾). 그리고 창고, 방앗간, 마구간 등으로 사용된 귀틀집의 흔적은 전국적으로 넓게 퍼져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고구려의 부경으로 알려진 창고용 건조물 역시 같은 형식이다. 이렇게 볼 때 귀틀다락집이라는 것은 고구려의 전유물도 아니었고 우리민족을 포함한 동북방민족들의 보편적인 건축형식이었으며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것이다. 그것이 창고로 사용되는 것은 살림채 건물이 정착되어 여름, 겨울의 구분 없이 사용가능하게 된 이후 귀틀다락집이 더 이상 여름주거로 분리되어 사용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 창고용으로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나무로 바닥이 짜여진 귀틀다락집도 북방계열 민족들 전체에 매우 보편적이었던 형식이되 한반도에도 남아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5 마루-구들 혼합형식의 시원

28) 숙신계통의 柵屋은 통나무로 짠 귀틀집이 틀림없다고 판단된다.

29) 김준봉, 리신호, 여민, 장문기, 환경생태주택의 관점에서 본 황토구들의 일반적 특성과 적용,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Vol.2 No.3, 2002.10



그림 21 중국 吉林省 安圖縣 水田寸의 귀틀집

로부터 전래되고 마루는 남방으로부터 전래된 것이 아닐까하는 추측적 견해가 제시된 경우는 자주 있었다³⁰⁾. 앞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귀틀다락집이 북방민족 전체에 걸쳐 보편적이었다면 우리는 마루구조의 시원을 남방에서 찾을 필요가 없게 된다. 아시아 동북지역의 계절적 특성이 사계절이 분명하고 겨울이 춥고 여름이 더운 점을 감안할 때 수혈주거와 다락주거의 두 형식은 삶의 방편상 불가피했었던 건축적 해결방안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집의 마루와 구들의 혼합형식은 수혈주거에서 발달된 구들과 다락주거에서 발달된 마루가 자연스럽게 한집에 수용되어서 여름과 겨울을 같이 보낼 수 있게 하는 자연스러운 방편으로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9에서 와같이 수혈주거와 귀틀다락이 인접해 있다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한 집안에 구들과 마루가 같이 있는 형식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닥이 지면에서 떠있다는 한국주택의 특색도 다락집이 갖고 있었던 흔적과 구들이 지면보다 높아야 불을 때는 아궁이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혼합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전통주거가 마루와 구들이 혼합형식이라는 점은 남방과 북방의 혼합이 아니고 북방주거형식 중에 여름용 주거와 겨울용주거가 한집에 흡수되게 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름주거와 겨울주거가 하나의 주택 안에서 혼합될 수 있다는 것이 북방의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이겨내고 적응하려는 우리 선조들의 건축적 지혜였다는 것이다. 단지 한반도에서는 신을 벗고 집안으로 출입하며 좌식생활을 하는 전통에 맞게 하기 위해 부분온돌이 아니고 전면온돌이 됨으로 해서 주택실내의 바닥전

30) 예를 들어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上, 1983.8.1, pp.109~117

제가 지면에서 높아지며 한국주거의 특징적 바닥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6 구들의 시원

우리나라의 주택사 연구에서는 온돌의 출현이 언제부터였는가 하는 문제로 논란이 많이 있었다. 온돌구조가 지금과 같이 방 전체를 덮는 전면 온돌일 경우 그 출현이 언제부터 이었는지는 한국주택사에서의 흥미로운 과제이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칸을 포함한 부분온돌의 문제로 온돌 시원의 문제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 온돌도 전면온돌이 되기 전에는 부분적 구들형식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구들의 시원은 원시주거까지 올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ㄷ자형 온돌은 고려시대 회암사지³¹⁾에서도 확인된바 있고 현재도 만주족 주거에서는 ㄷ자형 온돌이 보편적이다³²⁾. ㄱ자형 온돌이 확인된 것은 고구려유적에서 이미 나타난바 있다³³⁾. 우리는 상식적으로 한국에는 전면구들이 있고 중국에는 전체가 아닌 칸이라는 부분온돌형식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조사된 북방의 모든 소수민족의 주거에서 몽고빠오를 제외하고는 칸 또는 구들이 없는 주택은 없었다. 현재 남아있는 사례들에서는 중국식 칸 형식이 대부분이었다. 칸 또는 구들이라고 하는 취사와 난방을 겸한 형식은 동북아시아의 보편적이고 특징적 주거형식이다. 한국온돌의 역사는 한반도에 국한되는 특징적 현상으로 보기 전에 더 넓은 지역적 보편현상 속에 집어넣어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형 전면 구들은 신을 벗고 실내에 출입하게 되는 내부공간사용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달된 지류적 형식으로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온돌의 역사자체는 선사시대까지 올라가는 아시아 동북지역의 지역적 특성이고 그 지역 내에서는 보편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이었던 것이다.

5. 결론

이 논문은 역사적 사실을 부분적 실물고증과 함께 추정과 가설적 방법을 포함하여 한국주거의 시원적 형식을 추정해보려는 작업이다. 그러한 작업의 단서를 한반도의 지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북방소수민족의 주거흔적들에서 찾으려 하였다. 역사적으로 북방소수민족들의 민족적 교류 및 혼합양상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한민족의 뿌리가 북방민족 계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는다. 한편,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단위의 건축사연구를 원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시킬 수는 없다. 한반도의 건축사 중에서도 특히 주거건축의 경우는 더욱이 그러하며 주거건축 중에서도 원시적 주거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다.

원추형 주거형식이 한반도에 살았던 원시인들에게서부터 보편적인 지상구조물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그 내부공간의 구성요소들이 지금의 우리주택에까지도 이어지는 특성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발굴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수혈주거 이외에 지상주거가 또 하나의 보편적인 주거형식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자는 제안도 하였다. 킷다락집형식이 북방소수민족에서 그러하였듯이 한반도에서도 여름주거 또는 창고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주거형식이었을 가능성을 추정하였고 그러한 다락집과 구들형식이 합하여서 우리의 전통주택을 대표하는 바닥구조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온돌의 문제도 한반도에 국한시켜서 파악할 문제이기보다도 아시아 동북지역의 보편적이고 원시적인 출발에서부터 한국형 전면온돌로 전개된 것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건축사 및 주거사 연구는 근대적 국가단위의 개념에 아직도 제한받고 있으며 그것은 조선시대건축에서부터 원시시대 주거건축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이다. 한국건축의 시원은 그러한 국가단위의 개념적용으로 풀여지기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지역적 건축현상이 어떻게 지류적인 변화과정을 밟아 가는가 하는 측면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한반도 북쪽의 건축현상에 대하여 지나치게 무관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한

31) 경기도박물관, 문혀 있던 조선 최대의 왕실사찰 檜岾寺, 열린아트, 2001.7.25, p.74

32) 김성우, 이원석, 중국 요녕성 만주족, 한족, 조선족 민가 사이의 상호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11호(통권157호), 2001.11, p.119

33) 張慶浩, 한국의 전통건축, 문예출판사, 1992.8, pp.513~514

민족의 뿌리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것임을 의미할 수 있다. 이 연구가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의 시작 이기를 바라며 앞으로 후속적 연구를 통하여 더 보완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秋浦, 『鄂倫春族』, 文物출판사, 1984.2
2. 內蒙古自治區編輯組, 『鄂溫克社會歷史調查』,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11
3. 凌純聲, 『松花江下游的赫哲族』, 國立中央研究院 歷史言語研究所, 1934
4. 德學英, 『鄂倫春』, 민족출판사, 2001.7
5. 瑪尼, 『高祿崁馴鹿人連輯』, 深圳雅臣印務公司, 2000.10.
6. 丁伯齡, 『中國古代建築技術史』, 博遠出版有限公司, 中華民國77年,
7. 張慶浩, 『한국의 전통건축』, 문예출판사, 1992.8.
8. 경기도박물관, 『문혀 있던 조선 최대의 왕실 사찰 檜岳寺』, 열린아트, 2001.7.25
9.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3.8
10. 김호걸, “중국 고대 북방 제민족의 거주문화”,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2003.5.
11. 신수영, “중국 동북부 제민족의 주거 및 주생활 특성”, 연세대 주거환경학과 석사논문, 2003.12.
12. 金敬梅, “중국 동북지역 북방민족 주거문화에 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4.8.
13. 김준봉, 리신호, 여민, 장문기, “환경생태주택의 관점에서 본 황토구들의 일반적 특성과 적용”,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Vol.2 No.3, 2002.10.
14. 바야르, 이문섭, “몽골주택의 역사와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1940년 이후 집합주택 단위평면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19권 제2호, 1999.10.30.
15. 김성우, 이원석, 김준봉, “중국 요녕성 만주국 민가의 특성과 그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5호(통권151호) pp.97-103, 2001년 5월.

The Primitive Housing of the Ethnic Minorities of Northeastern China, and their Influence on Korean Traditional Houses

- based on the Case Study of Five Ethnic Minorities in Heilungjiang
and Inner Mongolian Provinces -

Kim, Sung-woo
(Professor, Yonsei University)

Abstract

Historical study of Korean traditional houses have been carried, mainly, based on the geographical region of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case of primitive houses can not be researched according to the geographical and racial concept of modern nation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imitive houses of ethnic minorities of northeastern China, where the cultural and racial background have been deeply rooted in the history of Korea as well as Korean traditional houses. Through the field research and literary materials, the basic types of primitive houses of the five ethnic minorities could be identified. Among these types, those that have possible relationship with Korean houses, are cone shaped house, underground house, and elevated wooden house. Archeological evidences of underground houses were amply found in Korea already, but above ground evidences could not be found. However, It seems quite certain that the cone shaped houses and elevated wooden houses, too, existed in Korea as one of the earliest housing types, as can be examined in remaining examples in Korean peninsula. With no doubt, the primitive houses of Korea have strong connection with that of the ethnic minorities of northeastern China. This can be verified through the facts that the evidences of cone shaped houses, the similarities of the use of inner space, the evidences of elevated wooden houses. Also, the combination of wooden floor and ondol, which is known to be one of the strongest characteristic of Korean traditional houses, could be originated from the combination of primitive summer house, the elevated wooden house, and the winter house, the underground house with ondol.

Keywords :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Primitive housing type, Ethnic minorities, Korean traditional house
